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19:00 06:30 (새 벽) 09:30(중고등부)		
		10:30 (교 중) 10:30 (초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 매 미사 전후 고해성사 >>				

♣ 11월은 “위령 성월” 입니다. ♣

* 오늘(11/19)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 알 림

- 다음주(11/26) 돈보스코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교구장(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영명 축일 영적예물 안내
- 영적예물 봉헌 횡수를 11/19(오늘)까지 성전입구 봉헌함에 넣어주시요.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울뜨레아	11/19(오늘) 교중미사 후	지하강당
· 만나회 월례회 피정	11/20(월) 오전 10시 (피정 후 점심식사 있음)	피정방
· 제대회 월례모임	11/21(화) 오전 11시	1교실
· M.E 월례모임	11/26(일) 교중미사 후	6교실
· 성체분배자 성시간	11/27(월) 19시 45분	성체조배실

● 대림 특강(목요일 저녁 8시)

날 짜	강 사
12/8 (금)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님
12/14(목)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

● 예비신자 교리반 첫모임

(일) 낮 12시	정홍자 로마나
(화) 저녁 8시	이민규 엘리야 신부님
세례 예정	2018년 8월

*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권면하여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청년 대림피정

- 일시 / 장소 : 12/16(토) 9시 ~ 16:00 / 지하강당
- 대상 / 강사 : 본당의 모든 청년 / 김상운 베드로 신부님
- 참가비 / 문의 : 1만원 / 박정희(010-3785-8617)
- 주 제 : “사자 길들이기”

◆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1. 미사 참례 의무 : 모든 주일과 의무대축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부활, 성탄, 성모승천)
2. 금육과 단식의 의무
 - 금육 : 재의 수요일과 연중 매주 금요일
 - 단식 :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
3. 고백성사의 의무 : 적어도 1년에 부활과 성탄
4. 영성체의 의무
5. 혼인성사의 의무
 - 혼인성사에 관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6. 교무금과 헌금의 납부 의무
 - 성당의 유지와 사업을 위해 가정(세대주) 단위로 교무금을 내야하고, 헌금을 각자 정성껏 봉헌 합니다.

* 성탄절 맞이 본당 대청소 *

일 시 : 12/2(토) 오전 09:30 ~ 12:00
준비물 : 고무장갑, 걸레, 수세미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형제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새로운 미사 통상문

또한 사제와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의 어린양 →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제가 곧 나으리다 →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미사 예절을 수정하여 12월 대림 제1주일부터 새 통상문으로 미사 봉헌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

- 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당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12/25(일)까지 납부자 변경,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 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만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스코성가대(일요일 교중미사) 단원 모집

- 연 습 : 매주(목) 저녁 8시 / (일) 오전 9시
- 대 상 : 55세 이하 남, 녀 신자
- 문 의 : 단장 010-8949-7142

● 구역미사 및 형제회 모임

일 정	구 역	성당(지하강당)	형제회
11/22	15구역	21구역	8구역
11/29	11구역	4구역	24구역
12/6	임원모임(반장,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 다음 주일(11/26)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24구역	청 소	22구역
------	------	-----	------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성체 분배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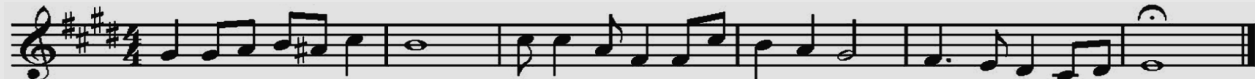
날짜	특전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11/19	김인기	박승환	박용환 박형순 박홍식	오광운	최승일
11/26	이계명	이운영	최상남 최석준 최창열	황태영	김봉기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11/19	황원선	김현철 신종구 임공섭 하재민	김인기 손정주
11/26	유명진	최상림 도현문 서운석 이상훈	하재민 이영민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8,131,000원
- 주일헌금 6,182,350원
- 감사헌금
지경자 3만원 노식무 3만원 강계화 10만원
조희숙 10만원 박정순 5만원 이순구 5만원
익명 20만원 박주형 5만원 이봉연 5만원
김순엽 5만원 김현철 5만원 정○○ 3만원
박영자 10만원 홍종열 73만원



행 복 - 하 - 여 라 주 님 을 경 외 - 하 - 는 모 - 든 사 - 람

● 2018 꿀벌유치원 신입생 일반전형 안내

- 대 상 : 2012.1.1~2014.12.31 출생유아
- 원서접수 : 2017.11.22.(수)~11.24.(금)/ E-mail접수
- 구비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 참조

● 본당 가정간호사업 안내

대 상	* 신자, 비신자 누구나 이용 가능
	* 만성질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암환자 및 특수 간호가 필요한 분
	*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
문 의	가정간호사 (010-8229-5785)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전액 무료)

♣ 후원금계좌 : 신 협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국 제 미 사

♣ 영 어 미 사

- 일시 / 장소 : 주일 16시 / 교육관(소성전)

♣ 중 국 어 미 사

- 일시 / 장소 : 주일 11시/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 한 국 어 교 실

♣ 일 시 : - 화, 목요일 저녁 7시 (19:00)
- 수, 금요일 오전 10시30분 (10:30)
- 토, 일요일 오후 1시 (13:00)

♣ 장 소 :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어를 가르칠 봉사자를 초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83.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계속) 지상의 평화 하느님 신앙에 대한 권리

인간은 올바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하느님을 공경할 권리가 있는데, 바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권리이다. 이는 락탄티우스(Lactantius)가 분명하게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느님만을 인식하고 따르며, 그분께만 공경을 마땅히 드릴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하느님께만 묶여 있고 매여 있다는 신심에서 종교라는 이름이 유래하고 있다.”

요한 23세 교황, 회칙<지상의 평화>(1963년)14항

지상의 평화 인권

국제 연합에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문헌은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인준된 (세계 인권 선언)이다. 이 선언의 전문(前文)에서 모든 국민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문헌 안에 있는 각개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 선언의 이런 특별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세계 공동체의 법적, 정치적 조직을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의미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더욱 장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는 기본권을 선언하며, 윤리적 선과 정의를 실현하고, 품위 있는 인간 생활을 전개할 권리와 위에서 말한 것과 연관을 맺는 다른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다.

요한 23세 교황, 회칙<지상의 평화>(1963년)143, 144항

기쁨과 희망 분열을 겪는 인간

참으로 현대 세계를 괴롭히는 불균형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힌 더욱 근본적인 저 불균형에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인간 자체 안에서 여러 요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 여러 가지로 자기 한계를 체험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참으로 무한한 자기 욕망을 느끼며 더 높은 삶으로 부름 받았음을 자각하고 있다. 수많은 유혹에 이끌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취사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구나 인간은 연약하고 또 죄인이므로 바라지 않는 일을 하고 바라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수가 드물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분열을 겪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서 이토록 허다한 사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1965년)10항